



홍콩

홍콩의 상징적인 항구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글로벌 테크놀로지 대기업의 이름이 빛나는 배운사인...
이 진취적인 도시에서 풍부한 기회를 만끽하자

장소: 아시아와 세계의 다리 **인물:** 카페, 호텔, 사무공간을 변화시키는 디자이너들
전통: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제도와 낮은 범죄율 **추천 명소:**
1일 관광코스 추천 **라이프스타일:** 창의 비즈니스의 도약 **마케팅:** 시선을 집중시키는 플라워 파워



도전의 성공
10



현장관리
13



전통을 계승하다
05



안전제일
11

2018년 9월
제 116호

비즈니스
브리핑



HK

목차/홍콩

비즈니스 센스

홍콩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일하고 쉬고 즐기 좋은
최고의 도시

편집: 제임스 챔버스(James Chambers)

부편집: 로지 프라타(Rosie Prata) 글: 커트 린
(Kurt Lin), 재스퍼 잉(Jasper Ng), 준 토요푸쿠
(Jun Toyofuku)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차드
스펜서 파웰(Richard Spencer Powell) 디자이너:
기울리아 투그놀리(Giulia Tugnoli) 사진 디렉터:

매튜 비먼(Matthew Beaman) 사진: 리우
징야(Liu Jingya), 릿 마(Lit Ma), 스테파니 텡
(Stephanie Teng), 케네스 창(Kenneth Tsang)

일러스트레이션: 짐 웡(Jim Wong)

홍콩은 항상 비즈니스 성공을 거뒀다.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7,400만 명의 이 현대적인 도시는 19세기 수출입항으로 자리잡은 후 국제무역항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수천 명의 사업가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년 글로벌 기업을 위해 비즈니스를 설립하거나 일하기 위해 홍콩에 도착한다.

1978년 중국의 개방으로 동서양을 잇는 홍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 개혁 후 40년이 지난 지금의 홍콩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과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급업체나 제조시설을 모색하는 일에서 출발한 홍콩은 이제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소비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으로 성장했다.

무역 관계는 새로운 기반시설과 주강삼각주 도시와의 협력으로 더욱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은 비즈니스 외에도 매력이 많다. 부러운 지리적 위치,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교통, 안전한 환경 등 비즈니스 용이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홍콩을 보람찬 라이프스타일을 영유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제 홍콩 여행을 위해 가방을 싸고 영감을 얻을 준비를 하자.



둘러볼 곳: 01 트리(Tree)/위엔롱 02 홈그로운 푸드 (Homegrown Foods)/신계지역 03 마그네틱 아시아 (Magnetic Asia)/홍콩과학공원 04 리틀 코브(Little Cove)/사이쿱 05 러브라믹스(Loveramics)/완차이 06 피라타 그룹(Pirata Group)/원척축항 07 와치박스(Watchbox)/센트럴 지구 08 포브 라디오(Fauve Radio)/성완 09 법의 요람/센트럴 지구 10 홍콩증권거래소/센트럴 지구 11 더 네이트(The Nate)/침사추이 12 IFAS(Integrated Fine Arts Solutions)/콰이칭 13 더 밀스(The Mills)/츠엔완

중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새로운 5가지 방법:

01 강자오 대교, 바다를 가로지르는 55km 교량터널 02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 중국 본토를 잇는 고속철도 03 리안탕/홍위엔와이 출입국관리소, 7번은 선전 동부로 나감 04 항공편과 페리가 통합된 티켓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해 배를 타고 주강삼각주 5개 도시로 이동 05 홍콩국제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로 간척 중인 부지

대만구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생산적인 지역 중 하나인 주강삼각주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에 도착해 페리를 타고 이동하면, 선전에서 비즈니스 회의를 하거나 마카오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이 지역은 산업지구 동관, 레저타운 주하이, 역사도시 광저우 등 8개 주요 도시로 구성된다. 대만구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영감을 얻어 중국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아시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목차

04 - 05

장소: 환영합니다

홍콩, 세계 모든 산업을 환영하는
풍요로운 도시

06 - 07

장소: 월드 서비스

전략적 위치와 중국과의 관계는
홍콩을 아시아 및 세계로 향하는
대교 역할을 하게 한다.

08 - 09

인물

사려 깊은 디자인을 통해 홍콩
최고의 공유 오피스, 레스토랑,
카페, 호텔을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스튜디오들

10 - 11

전통: 수치료 본 안전

낮은 범죄율과 강력한 법제도는
홍콩을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이상적인 도시로 만든다.

12 - 13

전통: 새로운 부의 창출

홍콩에서는 유기농 농장부터
지속가능한 가구까지 다양한
성공이 이뤄진다.

14 - 15

추천 명소

다음 비즈니스 여행 시 업무를
마치고 둘러보기에 좋은 1일
관광코스 추천

16 - 17

라이프스타일: 더 큰 그림

뮤직페스티벌에서 아트페어 등
홍콩의 문화 지도는 변하고 있으며
창의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다.

18 - 19

라이프스타일: 창조적으로 즐기자

회의가 끝났으면, 홍콩의 모든 것을
즐겨보자.

20

마케팅: 비즈니스 봄

초록빛 새싹부터 싱그러운 꽃에
이르기까지, 홍콩 기업들은 어떻게
주목 받을지 잘 알고 있다.



HK / PART A

장소 / 홍콩

홍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아시아에
첫 발을 디디든지, 홍콩은 세계인의
도착을 환영한다.



1 2

피라타 그룹(Pirata Group)

유럽의 연합
요식업

“꿈 같은 삶을 누리고 있어요”라고 황추항의 새로운 본부에서 마누엘 팔라시오(Manuel Palacio)가 말한다. 31세의 이 스페인 남자는 이탈리아인 사업 파트너 크리스티안 탈포(Christian Talpo)와 함께 피라타(Pirata) 레스토랑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작년에 문을 연 5개 본점을 포함해 8개 레스토랑을 홍콩에서 감독하고 있다. 각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설거지를 하던 힘든 시절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하지만 레스토랑 그룹을 확장하는 일은 신체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다. 교대 근무 후, 팔라시오는 종종 완차이와 소호의 식당가를 활보하는데, 더위 속에도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띠며 손님이나 매니저들과 이야기하곤 한다.

팔라시오는 2012년 런던에서 홍콩으로 옮겨와 아쿠아 레스토랑 그룹에 합류했고, 이곳에서 탈포를 처음 만났다. 2년 후 팔라시오는 이 유럽 듀오의 첫 번째 이탈리아 레스토랑 피라타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을 떠났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어요”라고 탈포는 말한다.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열고 나서 레스토랑 그룹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3

두 번째 레스토랑은 스페인 그릴 전문점으로 옵티미스트(The Optimist)라 불렀다. 이들에게 딱 맞는 이름이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처음 확장했을 때였어요. 레스토랑 수와 팀 규모가 2배로 늘었죠”라고 탈포는 말한다. 이후 두 파트너는 콘셉트를 점점 더 글로벌하게 확대해, 일본식 페루 바와 레스토랑, 그리고 중식점을 열었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라고 특유의 낙천적인 매력으로 탈포는 말한다.

와치박스(Watchbox)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
리테일

싱가포르 사업가 테이 리암 웨이는 60세 생일을 맞이하기 1년 전인 2017년, 와치박스(Watchbox)를 시작했다. 미국의 시계 판매업체이자 중고 명품시계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거브버그(Govberg)와 제휴해, 올해 초 첫 오프라인 전시장과 수리센터를 열기 위해 홍콩을 선택했다. 홍콩을 “세계 사업의 메카”라고 생각하는 웨이는 “우리의 제품 가격을 고려할 때 신뢰를 쌓기 위해선 고도의 개인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4

- (1) 피라타의 개인파티 공간인 더 로프트
- (2) 완벽한 조화 (3) 피라타 팀
- (4) 와치박스 (5) 테이 리암 위
- (6) 월든 램 (7) 더 밀스 (8) KEF
- 뮤직갤러리 (9) 소리를 높여라 (10) 티나 노턴과 콘란, CEO인 팀 바우더 리저



5

더 밀스(The Mills)
신세대 섬유 산업
텍스타일

홍콩의 텍스타일 역사는 더 밀스(The Mills)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패션 기업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 실을 만들던 이 공장들은 소유주인 난푹(Nan Fung) 그룹에 의해 섬유에 기술을 더한 스타트업 중심지로 변모했다.

언스푼(Unspun)은 첫 번째 이주 기업 중 하나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만난 홍콩인 월든 램(Walden Lam)과 미국인 베스 에스포네트(Beth Esponnette)가 창립한 이 비즈니스는 데님 사업의 환경적 유해성을 줄이면서 더 잘 맞는 청바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 고객은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선택하기 전에 30초간 신체를 3D로 스캔한다. 재고를 남기지 않아 낭비가 거의 없다. 청바지 제작은 현지 재봉사가 마무리하며, 배송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 목표는 3D 직물기로 이 과정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6

7

Q&A 마사토 타니 (Masato Tani)
도쿄 베이스 CEO
리테일



2007년 설립된 일본 패션 유통업체 도쿄 베이스(Tokyo Base)는 일본에 22개 매장과 200여 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다. 마사토 타니(Masato Tani) 대표는 도쿄 베이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번째 장소로 홍콩을 선택했다. 2017년 코즈웨이 베이(Causeway Bay)에서 스튜디오스(Studios)를 열어 존 언더커버(John Undercover), 래드 뮤지션(Lad Musician), 어태치먼트(Attachment) 같은 남성복 브랜드와 함께 자체 브랜드를 소개했다. 패션워크 구역의 이웃으로는 프라보아, 츠모리 치사토, 꿈 데 가르송, 와이즈 바이 요지 아라마토 등이 있는데 이곳은 감각적인 일본 제품을 쇼핑하는 패션 명소이다.

왜 홍콩을 선택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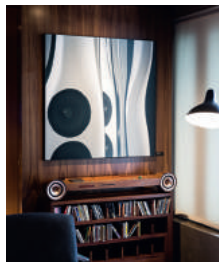
향후 중국이 우리에게 큰 시장이어서 아시아 일류 도시에 거점을 마련해야 했어요. 타이베이, 서울, 싱가포르가 아닌 홍콩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 매장이 있지만, 홍콩에도 매장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매장을 열기 쉬웠나요?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홍콩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본에서 최고의 매장책임자 4명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현지 인재들을 유치하고 패션 소매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지 직원들에게 일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매장을 개장하고 6개월 후 유니아이티드 도쿄(United Tokyo)라는 또 다른 매장을 열었습니다. 같은 부동산 회사가 두 번째 매장을 소개해주었는데, 이번에도 코즈웨이 베이였습니다. 현재 홍콩의 주요 개발업체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결정을 제대로 내린 듯합니다. 홍콩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순수하게 결과에 의해 판단되죠.



8

비즈니스 팁

“이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홍콩에서는 일이 이뤄지는 방식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판
마를렌 타센(Marlene Taschen)
본부장, 타센



9

콘란 앤 파트너스 (Conran and Partners)
소리를 느껴봐
리테일

이렇게 많은 사운드 속에서 쇼핑을 하는 경험은 드물 것이다. 듀텔 스트리트에 위치한 KEF 뮤직갤러리(Music Gallery)는 오디오 애호가들을 위한 스피커 쇼룸이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클럽형 매장은 콘란 앤 파트너스(Conran and Partners)에서 설계했다. 1961년 BBC 전기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이 브랜드는 수십년 후인 1992년 홍콩에서 소유권을 인수해 영국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25년째 아시아 대륙 전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런던에 본사를 둔 이 디자인 회사는 첫 번째 해외 지사로 홍콩을 선택했다.

“이곳 홍콩에 거점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죠”라고 디렉터 티나 노던(Tina Norden)은 자신이 디자인한 쇼룸에 앉아 얘기한다.



10

월드 서비스

세계 무역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와 중국과 가까운 연결성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상업적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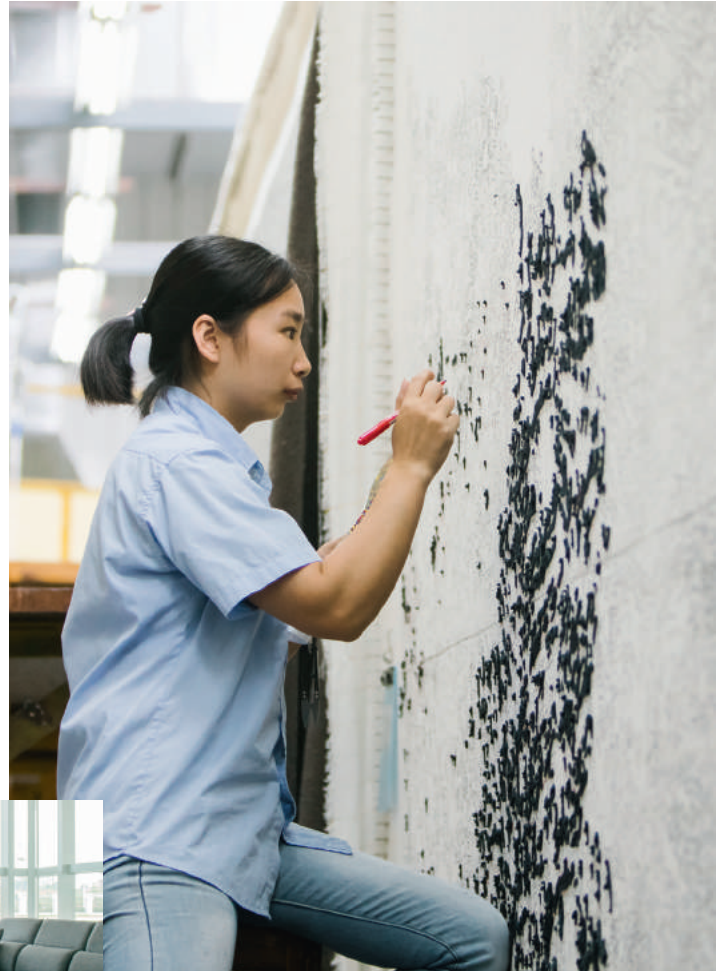
타이핑(Tai Ping)

카펫 디엠
제조

마크 워건(Mark Worgan)은 2017년 말 홍콩으로 건너와 고급 카펫과 러그를 만드는 타이핑(Tai Ping)의 최고경영자가 됐다. 전임자가 뉴욕에 본사를 둔 반면, 워건은 현재 US\$6,500만(€5,600만)에 달하는 매출을 2배로 올리는 계획의 일환으로 홈인테리어에서 사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제품을 쉽게 팔 수 있지만, 가장 큰 성장 기회는 아시아에 있다”고 현재 780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면에 위치한 타이핑의 최신 생산공장에서 이 54세 영국인은 말한다.

워건이 공식적으로 사면 공장의 문을 연 것은 5월이다. 프랑스 건축가 장 마르크 산드롤리니(Jean-Marc Sandrolini)가 설계한 이 2층 건물은 가운데 정원이 있는데, US\$3,800만(€3,300)에 불과한 비용으로 홍콩의 회사에 필요한 주요한 변화를 마무리했다. 작년에 타이핑은 전통 수공예 러그와 카펫에 집중하기 위해 기계식 직조제품 사업부를 매각했다. “타이핑의 심장과 영혼은 수공예 작품에 있다”고 홍콩그랜드아쿠리움에 납품할 파란색 카펫을 살펴보는 워건은 말한다. 타이핑의 우아한 작품들은 파리의 부티크는 물론, 모나코의 최고급 호텔인 파르몬테카를로 호텔이나 가장 큰 카펫이 깔린 베이징의 페닌슐라 호텔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타이핑은 1956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다. 중국 본토를 망명한 숙련된 이주민들에게 홍콩에서 일자리를 준 것이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1992년 중국으로 이전했지만, 직원 복지에



- (1) 실패 (2) 집중 또 집중
- (3) 스타일시한 러그
- (4) 맞춤 인테리어
- (5) 타이핑 내부 정원
- (6) 더블에스프레소로 주세요 (7) 컬러풀한 컵들
- (8) 리브라믹스 컵
- (9) 서구풍역 (10) 심플한 의자 (11) 아름다운 선과 각
- (12) 거리 뷰

대한 실천은 계속되고 있다. 명품 브랜드에 공급한다는 것은 윤리적 소싱이 필수임을 의미하며, 공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아, 호주, 유럽, 미국 전역의 공장을 감독해온 카펫 전문가는 “이곳 염색시설은 세계 수준에 견줄 만큼 앞서 있다”고 말한다.

오늘 워건은 잠재적 신규 고객인 브라질 제트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와 미팅이 있다. 경쟁사인 걸프스트림(Gulfstream)과 봄바르디에(Bombardier)는 이미 타이핑의 고객이다. 글로벌 엘리트 기업의 인테리어를 맡는 것은 타이핑 역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홈인테리어에 있으며 타이핑은 시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러그가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차선의 선택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타이핑의 미래는 밝다”고 워건은 말한다.



6



7 8



러브라믹스(Loveramics)

커피 사업의 인기
세라믹

커피 문화는 러브라믹스(Loveramics)의 핵심이다. 이 도자기 브랜드 창립자인 윌리엄 리(William Lee)가 설치한 사내 커피바를 둘러봐도 잘 알 수 있다. 윌리엄은 2008년 아내와 함께 현대적인 가정용 식기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후 카페와 레스토랑의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브랜드에 커피 붐이 일어나 현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콜롬비아 로스팅 커피의 명소 데보시온(Devoción), 영국의 해즈빈(Has Bean) 등 세계 곳곳에서 선명한 색상의 러브라믹스 컵에 카푸치노와 밀크커피가 담긴다. “홍콩의 위치는 정말 최고예요, 세계의 중심이죠”라고 윌리엄은 말한다.



12

시티플러스(Cityplus)

앉아보세요
가구

케빈 룡(Leung)은 매주 홍콩에서 주하이까지 200명의 직원을 만나기 위해 페리에 오른다. 산포콩(San Po Kong) 본사에서 중국 해안도시에 위치한 공장까지 2시간 동안 그는 전 세계 100여 개 도시로 배송될 도로시설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시티플러스(Cityplus)는 버스정류장 부스, 기차역 안내대, 공유자전거 거취대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이다.

아이다스(Aedas)

패스트트랙에 오르다
건축

세계적인 건축회사 아이다스(Aedas)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2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서구룡역 프로젝트는 홍콩과 중국을 광범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출입국관리시설 프로젝트는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가로지르는 강 어귀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터널의 입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프로젝트는 2/3가 중국에 있다”고 1983년 HSBC 빌딩 프로젝트로 홍콩에 오게 된 창립자 키스 그리프피스(Keith Griffiths)가 말한다. 이후 아이다스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의 교통 인프라를 설계했다. 그는 “전 세계 빌딩 건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덧붙인다.

비즈니스 팁

“홍콩의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탑승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해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식업

제이슨 코헨
(Jason Cohen)
세라비(CÉ LA VI)
공동창립자



9



10 11



Q&A 로라 차(Laura Cha)

회장, 홍콩
증권거래소
금융



우리는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지 않아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의 상장을 놓쳤어요. 미국에서만 상장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로라 차는 5월 홍콩증권거래소를 이끄는 첫 여성이 되었다. 127년 된 홍콩증권거래소는 특별한 한 해를 맞고 있다. 주요 규정의 변화로, 이제 테크기업 창립자들은 지배권을 잃지 않고 회사를 상장할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는 7월 이러한 차등의결권주식"을 이용했다.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승인은 어떤 의미가 있나?

25년 만에 실시한 가장 큰 개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 전,

세계 무대에서 홍콩의 강점은 무엇이죠?

홍콩은 동서양을 잇는 진정한 관문입니다.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더해주소,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해외 투자를 원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콩은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H K

인물 / 홍콩

벽과 벽

홍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이 스튜디오들은 사려 깊은 디자인을 통해 홍콩 최고의 공유 오피스, 레스토랑, 카페, 호텔을 선보이고 있다.

최고의 디자이너

공유 오피스 제공업체 *더데스크(TheDesk)*와 함께 일하는 *토비 영 디자인(Toby Ng Design)*

홍콩의 공유 오피스 브랜드 *더데스크(TheDesk)*는 3월 코즈웨이 베이에 세 번째 분점을 열었다. 이러한 확장의 핵심은 복잡무상한 산업에서 차별화되는 시각적 아이덴티티이다. 2개 책상 모양의 D자 로고는 회사 명함을 깔끔하고 기하학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포용성 있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준다. 회원은 다른 회원들은 물론 인접한 타워블록에 위치한 기업과도 연결돼 있다.

이 로고는 홍콩의 떠오르는 스타 토비 영(Toby Ng)의 작품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더데스크*의 공동창업자 오스카 베누이스(Oscar Venhuis)는 말한다. 최종 결과물은 매우 심플했지만 그 과정은 길었다. 토비는 평소보다 2배나 긴 시간을 디자인에 투자해, 로고를 완성하는 데 8개월이 걸렸다. “품질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고 CEO 겸 공동창업자인 토마스 휘(Thomas Hui)는 말한다. 2016년 사이잉펀(Sai Ying Pun)에 처음 문을 연 곳은 실험적 장소로, 토마스는 건축가가 만든 플레이스홀더 로고에 만족했고 런칭을 위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준비되었다.

2017년 7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공개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였다. 내년 상하이와 선전, 싱가포르로 진출하기 앞서, 올해 5개 분점을 더 열 계획이다.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미래 사업에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토마스는 말한다.

.....
스튜디오: 토비 영 디자인(Toby Ng Design)
업종: 그래픽 디자인
위치: 511 Queen's Road West, Sai Wan
대표: 토비 영
창립: 2014년
디자이너: 6명
웹사이트: toby-ng.com
기타 작품: 야우마테이 호텔 스테이지 (Hotel Stage)
사진: 오스카, 토비, 토마스



인물



그래피티의 멋

*엘사 장 드 디유(Elsa Jean de Dieu)*의 거리예술이 사람들을 *우마노타(Uma Nota)*로 이끈다

이른 저녁, 필 스트리트(Peel Street)의 *우마노타(Uma Nota)* 레스토랑 앞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브라질과 일본의 퓨전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기다리는 건 아니다. 일부는 프랑스 아티스트 *엘사 장 드 디유(Elsa Jean de Dieu)*의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엘사는 10년 전 홍콩으로 이주해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우마노타*의 주인인 오페(Offe) 남매, 알렉시스(Alexis)와 로라(Laura)는 상파울루 거리의 화려한 분위기를 홍콩 소호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외벽에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했다. 화관, 금 귀걸이, 공작새 깃털, 큰부리새로 장식된 여성이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경쟁이 치열한 홍콩의 맛집 거리에서도 눈에 확 띄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번째 *우마노타*는 파리에 오픈할 계획인데, 현지 레스토랑 파트너가 이창의적인 레스토랑이 프랑스 수도에 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
스튜디오: 엘사 장 드 디유 스튜디오(Elsa Jeandedieu Studio)
업종: 벽화, 월아트, 페인트 마감
위치: D호, 11F, Man Lok Building, 89-93 Bonham Strand East, Sheung Wan
대표: 엘사 장 드 디유
창립: 2015년
디자이너: 3명
웹사이트: elsajeandedieu.com
기타 작품: 코즈웨이 베이 퓨어 요가(Pure Yoga)
사진 속: 엘사와 로라

해변 명소

리틀 코브 에스프레소(Little Cove Espresso)와 스튜디오 어드젝티브(Studio Adjective)는 홍콩의 카페 문화에 호주 해변의 정취를 더한다

커피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만, 리틀 코브 에스프레소(Little Cove Espresso)에서는 느긋한 휴식을 위한 초대장에 가깝다. 멜버른에서 몇 년간 거주했던 아담 키스(Adam Keith)와 그의 아내 제이드(Jade)는 밀크커피와 스메이드 아보카도 토스트를 서빙하는 것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홍콩 해변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는 카페를 홍콩에서 열고 싶었다.

2015년 이들은 키스가 자란 해안가 마을 사이쿵(Sai Kung) 인근의 작은 카페를 인수했다. 올해는 근처에 있는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 천장도 높고 앞뜰도 있지만, 싱그러운 바닷바람과 근사한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건 같다. 이 커피 커플은 더 큰 리틀 코브 매장을 디자인하기 위해 또 다른 부부 팀인 윌슨 리(Wilson Lee)와 에밀리 호(Emily Ho)를 찾았다. “윌슨과 에밀리도 호주에 살았기 때문에, 멜버른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죠.”



.....
스튜디오: 스튜디오 어드젝티브
 (Studio Adjective)
업종: 인테리어 디자인
위치: 8F, 8 On Wo Lane, Central
대표: 윌슨 리
창립: 2016년
디자이너: 4명
웹사이트: adj.com.hk
기타 작품: 사이잉핀 녹 커피(Noc Coffee)
사진 속: 에밀리, 윌슨, 제이드, 아담

삼총사의 회사

부티크 부동산 개발업체 디스트릭트(District) 15와 찰리 & 로즈(Charlie & Rose)의 공동 생활

디스트릭트 15는 소매업과 호텔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서비스 아파트 건축부터 시작했다. 10년 후 창립자 디네시 니할찬드(Dinesh Nihalchand)와 알렉스 벤트(Alex Bent)는 71개 룸을 보유한 네이트(The Nate)라는 새로운 건물과 함께 본업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10월에 첫 입주자들을 환영한다. 침사추이 네이션 로드(Nathan Road)에 위치한 네이트는 현재 공동시설과 공유구역이 있는 셰어하우스형 아파트로서 홍콩의 성장하는 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좋은 곳이다.

네이트는 이곳을 설계한 찰리 & 로즈(Charlie & Rose)의 디자이너 벤 맥카시(Ben McCarthy)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벤이 전 고용주인 캔디 & 캔디(Candy & Candy)와 함께 마지막으로 설계한 레지던스는 런던의 원 하이드파크(One Hyde Park)였다. 이후 이 호주인은 홍콩으로 이주해 직접 회사를 만들어 주로 F&B 산업에 집중했다. 찰리 & 로즈가 디스트릭트 15의 한 레스토랑 세입자를 위한 공간을 설계했을 때, 세 사람의 길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찰리 & 로즈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디자인한 인테리어가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라고 벤트는 말한다.

각 룸마다 독특한 레이아웃이 있지만, 50년대 스타일의 캐비닛을 참조한 테라조, 황동장식, 월넛 베니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한편, 파스텔 색상의 바스룸은 1970년대 홍콩의 타일양식을 접목시켰다. 개인 바스룸을 만든 것은 공동생활에 대한 이 삼총사의 사려 깊은 접근방식 중 일부다. 이곳이 학생기숙사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안식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50여 명의 거주자들이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맥카시는 말한다. 이 접근방식에



따라 구룡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어쩔 수 없이 친목도모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일도 없다.

기술도 선별해서 신중하게 적용했다. 최고급 사양의 오디오장치는 도입하고, 출입문의 음성 지원 기능은 제한했다. “초창기부터 우리는 까다로운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눈속임이나 현란한 술책을 지양했어요. 우리는 심플함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그 자체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디네시는 말한다.

.....
스튜디오: 찰리 & 로즈(Charlie & Rose)
업종: 인테리어 디자인
위치: 2F Wing Hing Commercial Building, 16 Sutherland Street, Sheung Wan
대표: 벤 맥카시
창립: 2011년
디자이너: 4명
웹사이트: charlieandrose.com.hk
기타 작품: 소호 스톡턴 위스키 바 (Stockton Whisky Bar)
사진 속: 알렉스, 벤, 디네시



HK / PART A

전통 / 안전

수치로 본 안전성

낮은 범죄율과 강력한 법제도 덕분에,
홍콩은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이상적인 도시가 되어준다.

민간응급서비스
레드 히어로
긴급서비스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부업으로 민간 응급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홍콩의 달빛 의사와 엔지니어들은 종종 실제로 달빛 아래에서 수색과 구조를 위해 산을 오른다. 마크타밍(Mak Tat-ming)은 평일에는 등급평가부의 공무원이고 주말에는 전술단 부사령관이다.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고 평생에 한번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마크는 말한다. 1984년 마크는 더 많은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정부 부서를 이력서에 추가한 적 있다. 토요일 아침 훈련에서 자일을 타고 암벽을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마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야외 훈련과 현장 근무를 위해 빨간색 옷을 입은 3,600명의 강인한 대원들(청소년 훈련생도 많다)은 자신들의 업무가 응급서비스 전문인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문서를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계절별 홍수에 대응하는 일부터 행사 중



1

군중을 통제하거나 외국 고관 방문 시 경찰을 돕는 일까지 무엇 이든 할 수 있다. 한편, 산악수색구조단(Mountain Search and Rescue Company)으로 알려진 전문가 부속부대는 산악지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헬리콥터 구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훈련받는다.

거의 모든 민간응급서비스는 파트타임으로 진행되는데, 각 대원은 매년 6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일부 열정적인 대원은 교육을 2번 받기도 한다. 원래 1950년대 민방위부대로 설립된 홍콩 정부의 한 부서인 이 현대적인 서비스는 매년 300명의 신규 대원을 모집하고 모든 참가자는 체력과 민첩성 테스트를 받는다. “훈련은 모두 왕립공군구조단의 방식을 따른다”고 대책본부장이자 훈련담당관인 보스코 찬(Bosco Chan)은 말한다. 보스코는 100명밖에 안 되는 정규대원 중 한 명이다.



- (1) 암벽 하강
- (2) 민간응급서비스 훈련
- (3) 소방응급서비스 교육원생
- (4) 화재 진압

2

시티 라이프

“홍콩에는 소규모 공원이 많습니다. 센트럴 지구의 팍츠레이인(Pak Tsz Lane)에서 홍콩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공원을 감상해보세요.”

협업
 끝없는 발전
 더 하이브(The Hive)
 창립자



3

소방응급서비스교육원
 불타오르는 의지
 긴급서비스

청완우(Tseung Kwan O)의 넓은 해안지대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으로 이뤄진 팀들이 최첨단 교육시설에서 실습 중이다.

28개 건물은 홍콩의 독특한 지형과 다양한 기반시설에 맞게 세워졌다. 고층건물 옆에는 모험으로 만든 항공기, 컨테이너 선박, 지하철역이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항구, 대중 교통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정이다.

홍콩의 최신 소방응급서비스 교육원은 2016년 HK\$ 35억(€ 3억 8,100만)을 투자해 문을 열었다. 이 새 시설은 구룡 도심에서 동쪽으로 20분 거리에 있고 이전 시설보다 5배 더 크다. 이는 홍콩이 놀라운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또 홍콩은 국제 회의를 주최하고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의 대표단을 환영하면서 지역 이웃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지식 공유는 소방계의 핵심”이라고 홍콩소방국의 앤디 영(Andy Yeung) 부국장은 말한다.

법의 요람
 법대로 하라
 법

강력한 법제도 덕분에 많은 사업들이 홍콩으로 향하며, 현재 홍콩은 이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시 정부는 법무부에 인접하고 수많은 글로벌 로펌과도 가까운 역사적 건축물 2곳을 국제기구와 NGO를 위한 장소로 개조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의 요람은 센트럴 지구의 고층 건물 가운데 서 있는 프랑스 선교단 건물이다. 일사귀가 우거진 3층 붉은 벽돌집으로, 프랑스 선교사 기숙사부터 러시아 영사관을 포함해 다양한 다국적 기능을 수행한다.

2020년이 되면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제일 위층에 들어온다. 125년 전통의 이 국제기구는 국제조약을 통해 국경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4

새로운 역사의 탄생

홍콩은 식민지시대 건축물의 창조적 유용성을 계속 찾고 있다. 새롭게 변신한 역사적 건축물 몇 곳을 소개한다.

01 타이쿤 헤리티지아트센터 (Tai Kwun Centre for Heritage and Arts)

이 빅토리아 건축 양식의 건물은 중앙경찰청, 교도소, 치안법원으로 사용됐다. 현재 헤리티지 센터와 현대미술관으로 개조되었고, 18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 참조).

02 PMQ

피엠크는 옛 경찰기혼자숙소(Police Married Quarters)의 약칭으로, 소호에 위치한 1950년대 주거단지이다. 중앙경찰청

(현재 타이쿤)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곳에 거주했다. 지금은 디자인 스튜디오, 상점, 식당, 전시 및 행사로 분주한 창조적인 구역으로 변했다.

03 SCAD

사바나예술디자인대학(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은 1960년대 북구룡 치안법원 건물을 아시아 캠퍼스로 선택했다. 1960년대 재판소 중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여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04 타이오 헤리티지 호텔 (Tai O Heritage Hotel)

란타우(Lantau)섬 국제공항 너머에 위치한 이 19세기 경찰서는 호텔로 변신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타이오 어촌을 방문해 전통 수상가옥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HK / PART B

전통/지속 가능성

새로운 출발

홍콩에서는 유기농 농장부터
지속가능한 가구까지 다양한
성공이 이뤄진다.

트리(Tree)

지속가능한 성장
가구

홍콩증권거래소에서 돈을 모으는 건 해외 대기업만이 아니다. 홍콩 가구 브랜드 트리(Tree)는 2018년 초에 상장되어 초기 공모 수익금 HK\$ 2,200만(€ 240만)을 홍콩에서 소매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했다. “IPO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해준다”고 전문이사 케이트 바빙턴(Kate Babington)은 말한다. 케이트는 서신계지역 유엔롱(Yuen Long)에 있는 새로운 트리 매장에서 재활용된 인도네시아 티크 테이블에 앉아 있다. “사람들은 매장에서 우리 제품을 만져보길 원합니다.”

홍콩에서 2005년에 설립된 트리는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견고한 목

재로 만든 가구의 대명사가 되었다.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분야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전시룸을 스타일링하는 것이다. “8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해외 주민이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영어를 사용했다”고 홍콩에서 태어난 영국인인 바빙턴은 말한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직원은 모두 만다린어와 광둥어를 해야 합니다.”

바빙턴은 영국 바디샵(The Body Shop)에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고인이 된 아니타 로딕(Anita Roddick) 밑에서 제품과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웠다. 소싱을 위해 홍콩에 파견되었던 바빙턴은 친구이자 트리의 창립자인 니콜 와클리(Nicole Wakley)의 요청으로 트리에 합류했다. 최근 와클리는 사업을 매각하고 미국 지역 라이선스를 받아 시애틀에서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트리는 또한 유통업체를 통해 중국 내 2개 매장에서 판매되는데, 이들 매장도 홍콩 본사에서 감독한다. “우리는 스타일링과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객이 걸으면서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바라죠”라고 바빙턴은 말한다.

확장이 뜻하는 의미는 현재 68명의 직원이 일하는 이 회사가 본사부터 매장까지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걸 말한다. 따라서 직원 교육은 바빙턴의 주요 관심사다. 브랜드에 대한 열정은 아시아 지역 생산시설을 자주 방문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바빙턴은 이러한 열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2년 전 매장 직원 중 10명을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데려가 직접 보게 했어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모두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 돌아왔어요”라고 바빙턴은 말한다. 홍콩의 소매 및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트리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개 매장을 더 개장할 예정이다. 바빙턴은 기회가 있다면 다른 나라로 진출할 계획이지만, “매장 수를 늘리는 것보다 판매점을 통해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한다.



2

마주(Mazu)

바다의 여신
수영복

전직 럭비선수 아담 라비(Adam Raby)는 2014년 수영복 브랜드 마주(Mazu)를 창업해 패션 사업가로 변신했다. 라비는 홍콩의 어업과 해양 유산을 기리는 의미로 중국 바다여신의 이름을 브랜드명으로 정했다. 이는 사업에 큰 행운을 가져다준 결정이었다. 마주는 현재 아시아 전역에 30개 이상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 토박이 라비는 고향과 주변의 바다로 고마움을 돌려주고 있다. 그는 홍콩돌고래보호협회(Hong Kong Dolphin Conservation Society)를 위해 스페셜 에디션 트렁크 한 쌍을 디자인해 수익의 10%를 기부하고 있다.



3

비즈니스 팁

“해외에서 시간을 2/3 정도 보내기 때문에 홍콩 근교의 자연과 음식이 종종 그립습니다.”

테크놀로지
테렌스 콕
(Terence Kwok)
창립자, 틱랩스
(Tink Labs)

- (1) 목재가구 전문
- (2) 케이트 바빙턴
- (3) 아담 라비
- (4) 농장에서
- (5) 무르익은 농작물
- (6) 실내농장
- (7) 수확 준비 완료
- (8) 라파엘 드 라이
- (9) 재고 완비



에드가(Edgar)
현명한 소비
식품 소매

플라스틱 감소를 촉진하는 기업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섬 공동체인 홍콩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장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별크푸드숍 에드가(Edgar)의 스위스 창립자 라파엘 드 라이(Raphaël De Ry)는 말한다. 침사추이(Tsim Sha Tsui)에 있는 홍콩 쇼핑몰에 첫 번째 매장을 낸 지 거의 1년 만에 라파엘은 완차이(Wan Chai)에 두 번째 아울렛이자 첫 번째 독립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라파엘에게 있어 충성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소매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홈로운 푸드
(Homegrown Foods)
새로운 씨앗을 뿌리다
농업

뉴저지 출신 토드 달링(Todd Darling)은 완차이의 스톤 놀라(Stone Nullah)부터 엘긴 스트리트의 포스토 푸블리코(Posto Pubblico)에 이르기까지 홍콩에서 바와 레스토랑을 창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사업은 지속가능성 면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홍콩섬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9년 포스토 푸블리코를 개업한 지 1년 만에 이 39세 미국인은 홈로운 푸드(Homegrown Foods)를 창업해, 자신의 레스토랑에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고 홍콩 전역에서 가정과 농장을 연결시켰다.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집에서 지역 농산물을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라고 신계지역의 공급자를 방문한 토드가 말한다.



Q&A 데이빗 양 (David Yeung)
CEO, 그린 커먼
(Green Common)
식품 소매



3년 전 데이빗 양은 고기애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채식주의자가 되는 그린 먼데이(Green Monday)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제품을 파는 식품점으로 확장됐다. 3명으로 이뤄진 팀에서 출발한 이 42세 중년은 현재 직원 200명과 함께 6개 매장과 1개 레스토랑을 돌보고 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읽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지 17년이 됐네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아 쇼핑이나 외식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만이 선진경제의 유일한 미래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일하고 싶었습니다.

H K

추천 명소 / 홍콩

홍콩 1일 관광코스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차이완과 완차이의 차이를 모르신다고요? 자, 그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홍콩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출가분하게 즐길 수 있는 1일 일정을 소개합니다.

06.00

현지의 색과 개성을 느끼고 싶다면 홍콩 중심부에서 시작하세요

아트베젤, 와인박람회, 시계페어 등이 열리는 완차이 홍콩컨벤션센터 행사를 위해 홍콩에 오셨나요? 그러면 편리하고 개성 있는 플레밍(The Fleming)에 묵으세요. 홍콩의 수많은 거리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새롭게 단장한 이 호텔은 객실이 66개로 16개월간 리노베이션을 한 후 작년에 다시 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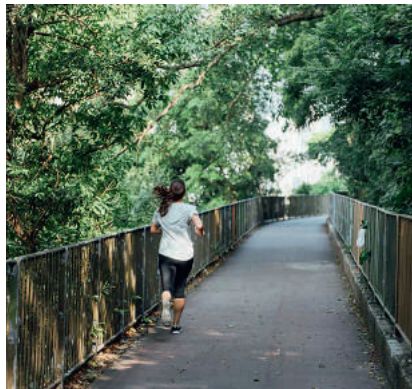


열어요. 홍콩에서 가장 다채로운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해요.

07.00

아침에 언덕을 산책하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죠.

홍콩사람들은 부지런하니까 조깅을 할 생각이시면, 혼자 뽕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차이 갭 로드(Wan Chai Gap Road)



로 가는 길을 찾은 후 보웬 로드(Bowen Road)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세요. 나무가 우거진 이 산책로는 조용해서 오찬이나 전화 회의 전에 머리를 식히기 좋아요. 어드미랄티(Admiralty)와 센트럴(Central) 위쪽 언덕으로 가면, 보웬 로드가 4km 뻗어 있어요. 전날 밤의 열기(홍콩은 밤에도 할 일이 많아요)를 땀으로 방출하려면, 왕복코스를 추천해요.

08.30

달콤한 빵과 진한 커피로 밝고 활기찬 아침을 준비하세요

플레밍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가 밀집한 스와토 스트리트(Swatow Street)에서 커피 한 잔을 해보세요. 다 괜찮지만, 커피룸(The Cupping Room)을 추천할게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타이웡(Tai Wong) 스트리트 이스트로 이동하여 베이크하우스(Bakehouse)에서 빵을 한두 개 정도 사보세요.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밀가루로 만든 크로와상과 데니쉬 페스츄리를 바로 구워서 신선하게 준비하죠. 빵이 오븐에 있어도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포시즈스에서 페스츄리 셰프로 근무한 그레고와르 미쇼(Grégoire Michaud)가 올해 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픈했고 미쇼는 5년간 제빵을 해왔습니다.

10.00

유서 깊은 홍콩의 신문을 읽어보세요

홍콩에 대한 일들이 궁금하지만 광둥어를 모르시나요? 노변 신문매대에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를 하나 뽑아보세요. 이 유서 깊은 신문사는 올해 초 화려한 뉴스룸과 함께 새로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읽을 만한 것을 찾으세요? 아늑한 서점 모시스(Mosses)에는 도쿄부터 코펜하겐까지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가득하죠. 이곳의 주인은 샴슈포(Sham Shui Po)에서 북비(Book B)도 운영합니다. 사진책이 많고 뒤쪽으로 오드원아웃(Odd One Out)이라는 판화 일러스트레이션 갤러리가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건너편 거리에 있는 모노클숍(The Monocle Shop)을 방문하세요.

12.00

먹고 마시고, 거리에 살짝 음료를 흘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홍콩에서는 3성급 오찬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호텔이 많아요. 하지만 자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싶으시면 프랜시스(Francis)로 오세요. 이곳은 정오에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최신 이스라엘 레스토랑은 예약을 받지 않아 순식간에 대기줄이 길어져요. 셰프 아셀 골드스타인(Asher Goldstein)이 어린 시절 텔아비브에서 맛본 양목 라구, 파프리카를 곁들인 고구마 등을 선보입니다. 자리를 기다려야 하면 시원한 사도네이를 한 잔 주문하세요. 홍콩은 야외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에 관대해요.

13.00

페리와 트램을 타고 홍콩을 둘러보세요

홍콩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요. 대다수의 시민이 대중 교통을 이용해요. 주로 빠르고 편리한 광



역 철도를 이용하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느린 페리나 특별한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세요. 센트럴로 가실 때는 존스턴 로드(Johnston Road)로 가서 트램(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을 타세요. 150개 이상의 2층 트램(또는 덩딩)이 홍콩 섬 북부 곳곳을 달리는데, 요새는 앞 범퍼를 미소 띤 모습으로 꾸몄어요. 포팅거 스트리트(Pottinger Street)에서 내려 홍콩의 주요 쇼핑가인 퀸스 로드 센트럴(Queen's Road Central)로 걸어가세요.

14.00

최첨단 현대미술작품과 고서를 만나보세요

쇼핑은 홍콩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신중하게 구매를 고려하고 싶은 뭔가를 찾으시면, H 퀸스(Queen's)를 둘러보세요. 올해 초, 해외 갤러리인 데이빗 쥐머(David Zwirner)와 하우스 앤 위스(Hausser and Wirth)가 이 고층빌딩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건축가 겸 미술품 수집가인 윌리엄 림(William Lim)이 예술을 위해 특별 설계



추천 명소

한 H 퀸스는 아시아 최고의 아트 허브로 발전하는 홍콩의 위상을 알리는 최신 신호탄이죠. 현지 작가의 작품에 더 관심 있으시면, 타이쿤 헤리티지아트센터를 방문하세요. 찬세리 레인(Chancery Lane)을 걷다 보면 현지 갤러리는 물론 희귀 서적을 판매하는 록만고서(Lok Man Rare Books)를 발견할 수 있어요.

16.00

선글라스를 쓰고 홍콩의 해안을 방문하세요

서쪽 타이핑산 스트리트(Tai Ping Shan Street)으로 계속 걷다 보면 조용한 거리,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 *퉁가우(tong lau)*라고 부르는 홍콩 고유의 저층 주택이 나와요. 크로미스(Khromis)는 이곳에 새로 합류한 안경점이에요.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오셨거나 새로 구입하고 싶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선글라스를 쓰고 갈 만한 데요? 음, 해변이 20분 거리에 있어요. 택시를 타고 “Repulse Bay, ng-goi(또는 *mmm-goy*)”라고 말하세요. 크로미스는 어 워크 오브 서브스턴스(A Work of Substance)가 만든 브랜드로 자체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경 착용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요. 45분 정도 여유가 있고 다시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시면, 실내 커피바에서 밀크커피를 마시며 스탭과 함께 나만의 안경을 만들어보세요. 안경은 두 달 후에 찾아가실 수 있어요.



19.30

시원하고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즐기세요

저녁 시간이 됐네요. 타이핑산 스트리트를 천천히 산책하며 헐리우드 로드(Hollywood Road)로 나오세요. 길을 따라 걸어가며 다양한 고저택의 외관을 장식한 컬러풀한 모자이크를 감상해보세요. 제대로 못 보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벽이 모두 초록색인 프랑스 레스토랑 유위(Uwe)는 습기로 시멘트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한 홍콩의 실용적인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여주죠. 유위는 홍콩 호텔계 베테랑인 유위 오포센스키(Uwe Opocensky)가 처음 문을 연 솔로 레스토랑이에요. 만다린 오리

엔탈에서 총주방장을 역임한 이 독일인 셰프는 명성이 자자해요. 유위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20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

22.00

건축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세요

새롭게 문을 연 루프탑 바 포핀제이스(Popinjays)에서 흥겹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최고층에 위치한 포핀제이스는 고층건물이 많은 홍콩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곳이죠. 센트럴에 위치한 1960대 모더니즘 빌딩 머레이(Murray)는 최근 새 단장을 통해 336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로 재탄생했어요. 인테리어는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 and Partners)에서 디자인했는데, 이 25층 바에서는 홍콩공원, 식물원, 포스터의 첫 번째 홍콩 프로젝트였던 HSBC 빌딩이 보여요. 마지막 주문은 새벽 1시까지이니 헤밍웨이 같은 에너지를 지니셨다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3명의 F&B 전문가가 만든 칵테일, 디 올드 맨(The Old Man)을 주문하세요. 다음날 공항특급을 타면 25분 만에 공항에 도착하니 시간은 충분해요.



HK/PART A

라이프스타일/비즈니스

더 큰 그림

뮤직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 홍콩의 문화
지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창의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다.



통합미술솔루션 (IFAS)

취급 주의

아트

IFAS가 2008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홍콩에서 미술품 보관과 취급을 제공하는 회사는 몇 군데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20여 곳이 있다. IFAS 이사 토르스텐 헨드릭스(Torsten Hendricks)는 같은 해 첫 번째 세계아트페어(이후 아트바젤 홍콩으로 발전)를 방문하기 위해 홍콩에 왔다. “당시 큰 컬렉션은 거의 없었고 세계적인 갤러리도 없었다”고 이 독일인은 말한다. 토르스텐은 현업에 뛰어 들기 전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고객에게 예술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창고에서 보낸다. “사무실이든 창고든지,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미술품을 다루고 있다”며 사업의 본질을 강조한다. IFAS는 콰이청(Kwai Chung)에 2개 시설이 있지만, 더 많은 공간을 찾고 있다.

일반적 생각과 달리, 개인 수집가는 IFAS 사업에서 약 1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개인 화랑과 회사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작품을 수집하거나 전시한다. 2015년 IFAS는 영국 작가

- (1) 안토니 고펠리 작품 설치 (2) 열심히 일하는 IFAS 팀 (3) 토르스텐 헨드릭스, IFAS 이사
- (4) 마그네틱 아시아 CEO 마이크 힐 (5) 센트럴 하버프론트 행사장 (6) 커피 아카데미 대표 제니퍼 류
- (7) 기분 좋은 분위기 (8) 홍콩 이튼 호텔 주방



리처드 윌슨(Richard Wilson)의 버스 조각상을 페닌슐라 호텔 지붕 위에 설치했다. 야외 공공설치 작품도 더 많아지고 있다.

최초의 홍콩 하버아트 조각공원(Hong Kong Harbour Arts Sculpture Park)이 올해 초에 문을 열었다. IFAS는 이곳에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작품을 설치하고 그의 순회 전시 이벤트 호라이즌(Event Horizon)의 설치를 책임졌다. 이 전시는 2015년 홍콩을 기점으로 아시아 데뷔를 했는데, 당시 센트럴(Central)과 어드미럴티(Admiralty) 옥상에 31개 아바타를 올려야 했다. “멋진 일이었어요”라고 토르스텐은 회상한다. 그의 감동은 이해할 만하다. 항상 무대 뒤를 담당하던 그의 일이 세상에 소개되고 공개적으로 회자되는 드문 경우였을 테니까.

**마그네틱 아시아
(Magnetic Asia)**

음악을 트세오
행사관리

마이클 힐(Mike Hill)의 업무용 명함에는 마그네틱 아시아(Magnetic Asia) 최고경영자라고 적혀 있지만, 홍콩에서 사용하는 개인 명함에는 '제이 포스터(Jay Forster), 저스틴 스위트팅(Justin Sweeting)과 함께 클락켄플립(Clockenflap)을 기획하는 3인조 중 하나'라고 써 있다. 2008년에 시작된 이 연례 뮤직페스티벌은 지난 10년간 규모와 위상이 모두 성장해 2017년에는 6만 장의 표를 팔아 센트럴 허버프론트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클락켄플립은 마그네틱 아시아의 지휘 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온라인 티켓팅 사업을 추가하고 소나르(Sónar) 같은 유럽 페스티벌을 홍콩에 소개했다. 1999년 영국에서 홍콩으로 온 마이클은 "산업 전반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아직 페스티벌계에서 할 일이 많다"고 설명한다.



4

**커피 아카데미스
(Coffee Academics)**

카페인 캠퍼스
F&B

건축 공부를 한 제니퍼 류(Jennifer Liu)는 새로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커피 체인점을 만들고, 9개 매장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부여했다. "홍콩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류는 말한다. 류는 싱가포르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중국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베이징에 있는 첫 번째 커피 아카데미스 매장에 선전의 두 번째 매장이 합류할 것이다.



6

비즈니스 팁
"APAC에서 첫 번째 매장을 열 도시로 홍콩을 선택한 이유는 리테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맞은편 벽화는 인기있는 셀피 명소가 됐어요."
디자인
안티 히르보넨
(Antti Hirvonen)
본부장 톰 디슨,
아시아 지부



7

이튼 호텔 (Eaton Hotels)

공동의 빌딩
호텔업

고급 호텔들이 신세대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캐서린 로(Katherine)는 랭햄 호스피탈리티 그룹(Langham Hospitality Group)의 변화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가족 소유 그룹의 3대 경영인으로 캐서린은 계열사인 이튼 호텔(Eaton Hotels)을 이끌고 있다. 캐서린은 이곳에서 벨벳 커튼보다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초 홍콩에 오픈한 호텔은 워싱턴에 문을 연 글로벌 호텔의 뒤를 이은 것이다.



8

Q&A 알렉스 리(Alex Li)

기업 이사
금융, 만다린
오리엔탈
요식업



철인경기 선수인 알렉스 리(Alex Li)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브랜드 중 하나에서 기업재무 이사로 근무한다. 알렉스는 일상 업무를 고려해 아침 6시가 가장 훈련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효과가 있는 결정인 듯하다.

아침 일찍 어디에서 연습을 하나요?

모든 곳에서도, 성완(Sheung Wan)에서 퀴메리 병원까지 조깅을 하고, 플로버 코브(Plover Cove)에서 자전거를 타고, 홍콩 크리켓 클럽이나 덤위터 베이에서 수영을 합니다.

홍콩의 시설은 어떤가요?

대단히 좋아요. 하지만 야외 훈련의 모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을 신고 밖에서 달리는 게 최고죠. 홍콩처럼 집에서 30분 이내에 해변, 숲길, 완벽한 포장도로가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장소가 있나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트윈스(The Twins)를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1,000개 계단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죠. 사우스 베이(South Bay)는 숨겨진 보석으로, 특히 리펄스 베이(Repulse Bay)까지 헤엄쳐 돌아온다면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실제로 공황할수록 따라 달릴 수 있는데,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불과 100m 거리에서 탈 수 있어요.



HK / PART B

라이프스타일/즐거움

창의 수업

중요한 미팅이나 전화회의를 마쳤다면 홍콩의 수많은 문화 행사에서 비즈니스 영감을 얻어보자.

타이쿤 헤리티지아트센터
새로운 활력을 얻다
행사공간

준공 기간만 12년이 걸린 타이쿤 헤리티지 아트센터가 올해 센트럴의 찬란한 고층빌딩과 소호의 활기찬 맛집 거리 사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며 문을 열었다. 옛 교도소, 치안병원, 경찰서였던 영국 식민지 건물 위로 2개의 놀라운 건축물(스위스 건축회사 헤르조그 앤 드 피롱(Herzog & de Meuron)이 설계)이 보인다. 바로 현대미술관과 공연예술관이다.

광둥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관이 지역 사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타이쿤*은 과거에 이곳을 부르던 “빅 스테이션”이라는 별칭에서 유래한다. “홍콩인이 애착을 느끼고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팀 칼닌(Tim Calnin) 관장은 말한다. 이 호주인은 작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합류했고 이전에 홍콩 필하모닉을 지휘했다. 결과적으로, 홍콩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거 소개될 것이다.

홍콩은 미술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 홍콩미술관의 재개관과 헤르조그 앤 드 피롱이 설계한 현대미술관 M+의 완공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이쿤은 어떤 역할을 할까? 타이쿤은 현대 미술 전시(*토비이스 베르거의 Q&A* 맞은편)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함께, 역사전시관, 미술도서관, 야외영화관도 선보일 예정이다.



2 3



4



5 6

- (1) 타이쿤 헤리티지 아트센터 (2) 열린 문
- (3) 팀 칼닌, 관장 (4) 과거의 추억 (5) 외벽
- (6) 내부 (7) 설치예술 (8) 앤드류 미드, MTR 건축책임자
- (9) 공공조각 (10) 포브 라디오 앞 패션부티크 (11) 창립자 (12) 방송 중

Q&A 토비아스 베르거
(Tobias Berger)
타이쿤 현대미술관
아트갤러리



“홍콩 한가운데 7m 높이의 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건 유례없는 일이죠”라고 토비아스 베르거(Tobias Berger)는 말한다. 토비아스는 타이쿤 헤리티지 아트센터의 현대미술관을 책임지고 있다. 이 미술관은 헤르조그 앤 드 뫼롱이 설계했다. 독일 출신의 토비아스는 M+에서 합류했는데, 그 전에는 영향력 있는 아트스페이스 파라 사이트(Para Site)에서 일했다.

M+와 함께 타이쿤 현대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요?
개념적으로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Tate Modern)과 서펜타인(Serpentine),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과 뉴뮤지엄(New Museum)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순회 전시를 위한 판매 박힌 공간이 아니길 바라죠. 그래서 모든 전시에 지역적 맥락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타이쿤은 홍콩 예술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술가들에게 모든 것이 안전하고 건전해야 하는 박물관과 판매만을 원하는 상업적 갤러리 사이에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예술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도 갖출 예정이죠. 보통 레지던스는 손님만 이용할 수 있지만, 홍콩에선 예술가들이 대형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전시에 참여할 예술가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우리는 협업 형태를 추구해요. 저희가 직접 큐레이트를 하진 않습니다. 다른 기관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도록 도와주려 하죠. 현재 2개 기관 기념 전시를 위해 2 곳의 홍콩 기관, 즉 스프링 워크샵(Spring Workshop), 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다음 전시는 베이징의 UCCA,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MMK에서 일했던 수산 가엔셴스키(Susanne Gaensheimer)가 감독할 겁니다. 또 홍콩의 소규모 기관인 루프탑 연구소(Rooftop Institute)와 숏헤어 스튜디오(Short Hair Studio)와 함께 공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작고 세계적인, 진정한 의미의 혼합체이죠. 2년에 한 번 최고 수준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고, 첫 번째 전시는 내년 5월에 있습니다.



MTR 아트
창의성을 위한 플랫폼
공공미술

매일 500만 명이 이용하는 홍콩의 철도는 세계 수준의 교통수단 그 이상을 의미한다. 현대 미술작품은 91개 MTR역 중 약 3/4을 장식하고 있다. 레미 러프(Remi Rough)의 기하학적인 그래피티 벽화는 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동안 퀴리 베이역에서 공개되었다. 설치될 최신 현장 특화물은 중국 고속철도망과 사람들이 왕복하는 우스트 주룽(West Kowloon)역에서 선보일 것이다. “저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도달할 수 있는 예술의 능력을 사랑합니다”라고 MTR의 수석 설계자인 앤드류 메데(Andrew Mede)는 말한다.



홍콩 자키 클럽(Hong Kong Jockey Club)
문화제일주의
투자자

타이쿤은 홍콩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문화유산 개량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홍콩 자키 클럽의 자선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홍콩 자키 클럽은 현재 일주일에 2번 경마대회를 개최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홍콩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지난해 스포츠 프로젝트부터 청소년 육성에 이르기까지 216명을 후원했다. 이 기록적인 해에는 2020년 서구문화지구에 문을 열 홍콩고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 HK\$ 35억(€ 3억 8,100만)도 포함된다.

시티라이프

“홍콩은 문화의 사막이 아닙니다. 매일 공연이 펼쳐지죠.”

아트
앨리스 프리드만
(Alison Friedman)
아티스틱 디렉터,
공연예술, 서구문
문화지구



포브 라디오(Fauve Radio)
스타일과 본질
미디어

DJ 로맹 에프엑스(Romain Fx)는 작년에 자신만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스튜디오는 성완(Sheung Wan)의 패션 부티크 마카(Mahka) 뒤편에 있는데, 이미 음악 프로듀서와 DJ들이 찾아와 유리벽 건너편에서 교대로 쇼를 펼친다.

라디오 진행자들과 포브(Fauve)의 친구들은 마카에 정기적으로 모여 더 많은 청취자와 손님들을 이곳으로 유혹한다. “DJ들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로맹은 말한다.



HK

마케팅/홍콩

인기 비즈니스

초록빛 새싹부터 싱그러운 꽃에 이르기까지, 홍콩 기업들은 어떻게 주목 받을지 잘 알고 있다.

개화만발

플라워 파워

리테일과 호텔업

홍콩에서는 레스토랑과 리테일이 여러모로 꽃피고 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 섹섹버거가 IFC 쇼핑몰에 처음 문 열었을 때, 소유주들은 축하문구가 커다랗게 적힌 다양한 입식 화환을 받았다. 이른바 개장 기념 축하 화환으로 공급업체, 건물주, 친구들이 보낸 것인데, 이는 신규 개장과 재개장을 축하하는 홍콩의 전통이다. 종종 가게 전면을 은통 화환이 차지하기도 한다.

IFC의 동료 세입자인 플란넬 플라워스(Flannel Flowers, 솜털 같은 호주꽃에서 이름이 유래함)는 섹섹버거를 위한 화환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계약비는 최대 HK\$ 5,000 (€ 550)까지 들었지만, 주인인 패트리샤고(Patricia Ko)는 이런 전통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1987년 은행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 홍콩에 온 이 싱가포르인은 일본, 에콰도르, 네덜란드에서 꽃을 공급받고 있다.

홍콩 전역에 프리미엄 플로리스트들이 문을 열고 있다. 패트리샤는 코즈웨이 베이에 두 번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린스 에드워드의 홍콩 전통 꽃시장이 있는 구룡에 세 번째 가게를



내려고 한다. 플로럴 디자이너이자 어넛 스튜디오 목(Anot Studio Muk)의 공동창업자인 패트리샤는 싱싱한 꽃을 찾기 위해 이곳을 일주일에서 너번 방문한다. 그녀는 2016년 파트너인 청(Chong)과 함께 어넛을 구룡에 창립했다. 이들의 기업 고객은 톰 디슨, 보컨셀, 셀린느, 멀버리 등의 빅 브랜드다.

다시 플란넬 플라워스로 돌아와 패트리샤는 조금 더 조용한 여름 기간을 이용해, IFC 매장을 정비하고 브랜드를 쇄신하고자 한다. 전통에 따라, 재개장 때에는 쇼핑몰 운영회로부터 화환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장관은 플란넬 플라워스가 25주년을 맞는 내년에 펼쳐질 것이다. “홍콩은 제게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지요”라고 패트리샤는 말한다.

딩딩 움직이는 마케팅 교통

광고를 위해 2층 트램을 래핑하려면 4명이 4시간 정도 걸린다. 현재 교통업체 수익의 반은 홍콩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움직이는) 광고판에서 나온다. 바로 홍콩섬 북부에서 운행하는 “딩딩”이라고 부르는 164개 트램이다. 크리스마스에는 광고 수요가 급증한다.

“광고주들이 저희를 최고로 생각하죠. 저희도 이 점을 강조하고요”라고 파리에서 이주한 본부장 시릴 오방(Cyril Aubin)은 말한다. 시릴도 덩딩을 타고 휘티 스트리트(Whitty Street)로 출퇴근한다. 지난해 몽클레르(Moncler)는 광고를 위해 수많은 트램을 래핑하고 프라이빗한 홍보 여정을 위해 트램 중 1/6의 실내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럭셔리한 유대관계는 114년 전통의 트램이 홍콩에서 가장 싼 교통수단이란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최근 인상에도 승차권 가격은 겨우 HK\$ 2.60 (€ 0.30)이다. 궁극적으로, 600배 이상 강력한 이 회사는 존재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 트램은 연간 7,300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중 관광객은 10% 밖에 안 된다. 최근에는 홍콩섬에 남은 유일한 공장에서 설계 제작한 최신 트램이 합류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